

박태업 목포 상동파출소 경위 '자치경찰 영웅' 선정

행안부, 자치경찰 출범 100일 맞아 대국민 심사 통해 선발

복지사각 주민 발굴 생활지원, 치안·지방행정 연계 모범도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업 경위가 '자치경찰 영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전국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대국민심사를 통해 3명을 선정했으며 박태업 경위가 주인공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2천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전국 17개 경찰청 산하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자치경찰 영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치경찰 출범 100일 맞아 대국민 심사 통해 선발 복지사각 주민 발굴 생활지원, 치안·지방행정 연계 모범도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박태업 경위는 지난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대인 어르신을 구조했다. 해당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보훈청 연금 지급 대상자였지만 치매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이 해당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사정을 파악한 박 경위는 관할 의료원,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연금 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박 경위는 여성안심 귀갓길 LED 가로등 교체, 후미진 사각지대 CCTV 설치, 전동휠체어 감박부착, 동 자체 특수 시책 추진 등

으로 국민 투표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3명의 자치경찰 영웅들에게 전제행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사 편지와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박 경위 등 이번 선정된 영웅들의 인터뷰와 선물 증정 현장 모습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박 경위는 선정된 3명의 영웅 중 유일하게 오는 28-29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제9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사례 발표자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다. 박태업 경위는 "범죄 없는 상동 만들기엔 본인의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자치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며 "안주하지 않고 자치경찰 활동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양제철 재능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광양제철소 보급자리 정리정돈 재능봉사단은 14일 "최근 지역 내 정리정돈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급자리 정리정돈 봉사단은 지난 4월 창단한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이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정리정돈을 도와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변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다. 재능봉사단은 최근 중마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혼자 청소가 어려운 주거환경 정리정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이웃의 소식을 듣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광양시 봉강면의 혼자 청소가 어려운 이웃

을 대신해 화장실부터 마당과 집안, 부엌까지 집안팎으로 구석구석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책임감있는 봉사활동을 위해 전문교육까지 이수한 단원들은 8시간에 걸쳐 청소를 실시하는 등 안부를 묻고 최근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의 마음 치유에도 나서 의미를 더했다. 양성모 단장은 "올해 4월 창단해 정리정돈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변 이웃들을 꾸준히 찾아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올해 상반기 5개 재능봉사단을 창단한 데 이어, 지난 9월 3개 재능봉사단을 새롭게 발대하면서 총 43개 재능봉사단을 운영 하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문흥초 '문어빵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문흥초가 13일 학교협동조합 '문어빵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교육자치의 장이고, 윤리적 경제활동 및 참여와 소통의 교육을 통해 교육주체로서 주변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는 실천교육의 장이다. '문어빵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방향과 정관, 사업계획서를 승인했고, 임원 선출 및 향후 운영에 필요한 안건들을 결정했다. '문어빵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 복지 증진사업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지역협력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채만기자

조합 활동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주변의 문제와 필요들을 해결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흥초 6학년 신하은 학생회장은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협조 덕분에 총회를 문제없이 개최할 수 있었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문어빵사회적협동조합' 활동으로 문흥초 학생들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흥초 정낙주 교장은 "이번 '문어빵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주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갈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완도경찰서, 노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완도경찰서는 14일 완도 하나마트 앞에서 노인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단체와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해 완도군, 대한노인회, 경우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인이 가장 안전한 완도"라는 슬로건으로 노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완도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5만 명 중 1만6천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노인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완도군 교통사고 사망자 중 80%가 노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령층의 교통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노인 운전·보행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담양소방서, 자연환경해설사 대상 응급처치교육

담양소방서는 최근 자연환경해설사를 도전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생태도시21 담양협의회에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급급 시 119다매체신고 및 영상통화 방법 ▲우리집 소방시설 대피훈련(피난안내도 작성 등)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2인 1조로 심장 압박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 체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에 대해 대상자 전원이 적극 동참했고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교육은 큰 호응을 얻었다. 박상태 담양소방서장은 "업무 중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인 4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목포여상, 9급 공무원 필기 7명 전원 합격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14일 "올해 시행된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 필기시험에 응시한 7명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한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에다 학교에서 공무원 시험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준 결과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실제 목포여상에는 교사들이 직접 국어, 영어, 한국사 지도를 하는 등 다양한 합격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목포여상 이재삼 교장은 "대학 졸업자들도 어려운 공무원 시험 합격의 쾌거는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추도록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에서 운영한 공무원반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과 방학 기간을 통해 담당 교사들의 특별 학습과 지도를 성실히 받은 결과"고 말했다. 목포여상 김광배 교장은 "요즘처럼 청년 취업

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일컫는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학벌 만능의 우리 사회에 시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목포여상은 2022학년부터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공공사무행정과, 간호학과를 신설해 공공사무에 필요한 인재와 보건간호 계열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채만기자

영광교육청,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사진전

영광교육지원청(이하 영광교육청)이 15일까지 쿠바 한인 10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영광교육청은 최근 청사 희망관 1층에서 영광군수, 영광군 초·중학교 교장 대표, 영광연합학부모회 대표, 영광초·영광여중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바 한인 100년의 발자취' 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전은 멕시코에 살던 나라를 잃은 한인 디아스포라 287명이 쿠바로 재이주 한 100주년(1921년 3월25일)이 되는 뜻 깊은 해를 기념해 진행됐다. 쿠바 한인의 조국 사랑을 공유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영광교육청과 전남대 평화통일교센터가 함께 준비했다. 사진전 첫 날에는 김계기 전남대 교수가 특강을 나눴다. 김 교수는 지구촌 끝 쿠바까지 이주한 한인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활동했던 모습과 후손들의 모습

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사진전은 15일까지 영광교육청 희망관 1층에서 진행된다. 김춘곤 영광교육장은 "전시회가 먼 타국에서 땀 흘려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냈던 한인들의 애국심을 영광지역 아이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배진용 동신대 교수, 특허 보상금 장학금 기부



동신대학교 배진용 교수(에너지융합대학 전기자동차학과)가 특허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으로 받은 보상금을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동신대에 따르면 배 교수는 지난 5월21일 '배터리 과온도 보호장치'를 대한민국 특허 출원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 배터리 과온도 문제로 수차례 폭발·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온도 감출을 병렬 방식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배터리 과온도 보호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난 6월 국내 증전기 생산기업에 이전됐으며, 배 교수는 기술이전 보상금 중 1천만원을 제자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앞선 4월에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급속 방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벤처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며 받은 보상금 1천만원을 재학생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바 있다. 배진용 교수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앞으로 총 51조원을 투자해 광주와 전남지역에 13만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분야에 수많은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실무 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 양성과 최신 기술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목포해경, 관내 연안 위험구역 합동점검

목포해양경찰서 오는 26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연안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관내 연안사고 발생건수는 총 41건이다. 방파제와 해안가에서의 실족, 차량 해상추락, 수영 미숙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25건(61%), 갯벌고립 사고 6건(15%), 기타 사고 10건(24%) 등이다. 이에 해경은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등 총 8개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단은 관내 38개소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위험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태 ▲위험구역 지정 타당성 여부 ▲위험표지판, 알람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제작기준 부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기자



정은성 호남대 교수, 광주관광포럼 주제발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관광경영학과 정은성 교수는 최근 광주 무각사에서 개최된 광주관광발전포럼 관광협업위원회 워크숍에서 '광주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정은성 교수와 관광경영학과 대학원생인 선문혜·홍경희·최사리씨가 공동으로 2020년 8월-2021년 8월까지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광주관광'을 키워드로 설정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구팀은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광주관광재단을 중심으로 광주시가 문화관광을 통해 관광진흥을 위한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화관광에 대한 관광마케팅 활동에 비해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에 대한 핵심 브랜드 및 관광자원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채만기자

결론

●전용준(광남일보 회장)·김재희(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씨 아들 성모군(㈜엔아이에스 대표). 김희기·이순현씨 딸 명미양(삼성전자 미래전략사업부)=16일(토) 오후 3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당(광주 서구 삼부대로 980) *축하해주시는 마음으로 축의금은 대신하겠습니다. ●김종만(광주일보 문화사업부장)·민경희씨 아들 민군, 문선주(광주시산림조합 전 비상임이사)·김찬심씨 딸 윤하영=16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 죽령대로 웨딩그라운드 3층 펠리체움.